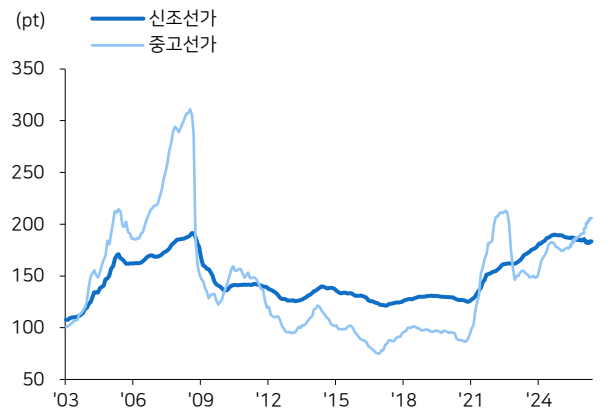
2026. 5. 4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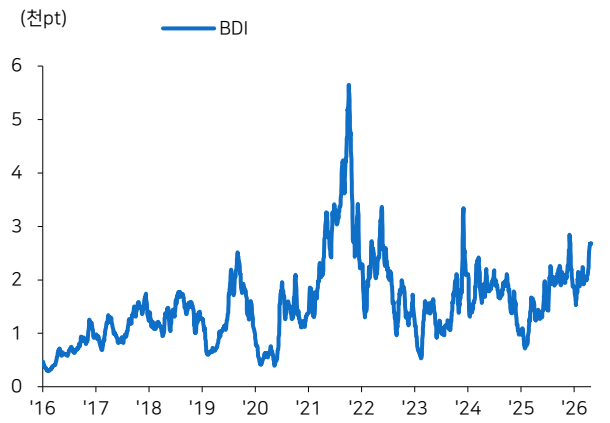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5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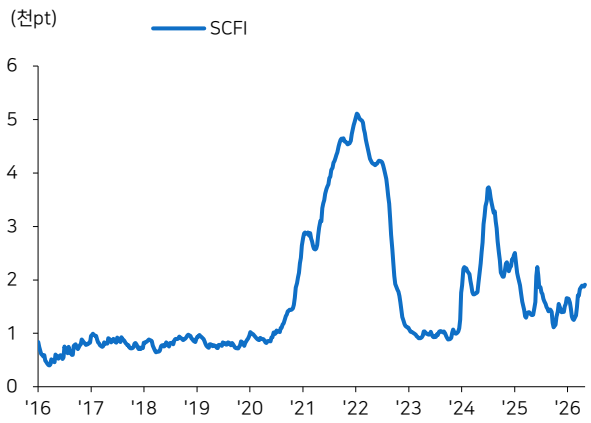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09.0달러 (+5.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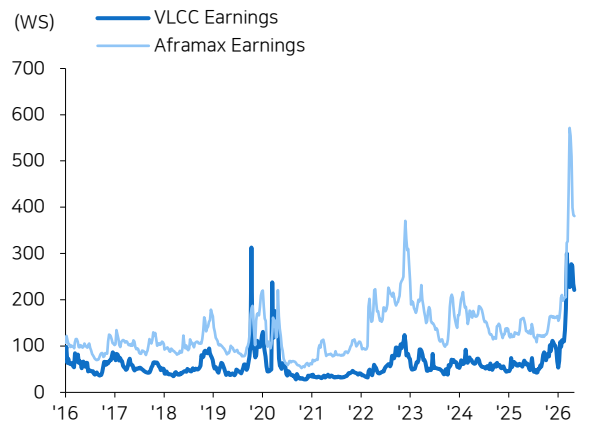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86.0p (+1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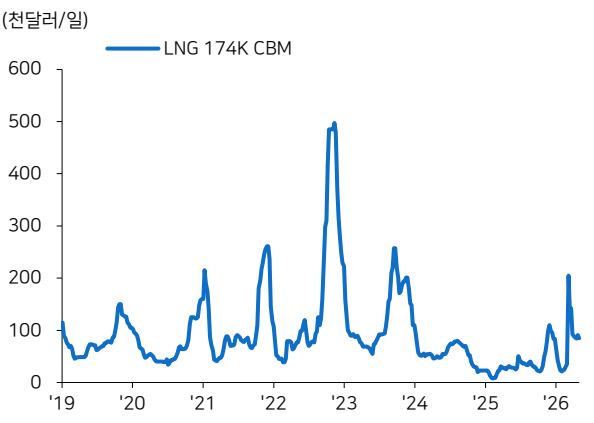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911.4(+36.1 WoW)



VLCC Spot Rate 220.8WS (-13.3p WoW)



LNG Spot 운임 85.0천달러 (-6.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KSS 해운, HD 현대중공업과 90K 급 VLGC 3 척 신조 계약 체결 (쉬핑뉴스넷) https://zrr.kr/QMQNxN

KSS해운이 HD현대중공업에 90K급 VLGC 3척을 신규 발주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BGN그룹 및 GYXIS와 장기대선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2029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BGN그룹과는 약 5,143억 원(2척, 7년), GYXIS와는 약 1,852억 원(1척, 5년)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짐. 특히 이번 신조선은 LP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구·신 파나마 운하를 모두 통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항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서해 최북단 연평도 앞바다에 4 조 들여 해상풍력 추진 (경향신문) https://zrr.kr/WTGH4c

한화오션이 인천 연평도 남측 해상에 총사업비 4조 1,000억 원 규모의 480MW급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보도됨. 해당 사업은 15MW급 발전기 32기 등을 설치해 30~40만 가구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2027년 발전사업허가와 2029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전해짐. 이미 풍황 계측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한화오션의 해양 에너지 토탈 솔루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LIG·마젤란, 캐나다 잠수함 동맹 구축...유도로켓 개발사업도 협력 (더구루) https://zrr.kr/VNesQj

한화오션과 LIG D&A가 캐나다 마젤란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은 LIG D&A의 범상어 등 수중 유도무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현지 개발 및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유도로켓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무기체계의 제3국 수출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한화오션은 현지 제조 전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기술 주권 확보와 방산 생태계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오는 6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둔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고 알려짐.

NextDecade will be chartering more ships, company CEO says (TradeWinds) https://zrr.kr/lxnknV

미국 LNG 생산 기업 NextDecade가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 가동을 앞두고 선대 확충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맷 샤츠먼 회장은 최근 한국 HD현대에서 인도받은 선박을 포함해 Dynagas로부터 장기 용선한 LNG 운반선 3척과 추가 확보한 2척 등 총 5척의 선단을 활용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1호기 시운전 및 중국향 물량 수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짐. 특히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산 LNG의 장기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분석하며, 향후 4~5호기 및 추가 확장 물량 처리를 위해 단기 및 장기 용선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독자적인 트레이딩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Shipping's decarbonisation drive back on track, says IMO (TradeWinds) https://zrr.kr/ovDKL0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탈탄소화 계획인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미국과 산유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도됨.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가 탄소 배출 선박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기술적 조치를 결합한 해당 프레임워크를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했으며, 작년 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비로 지연되었던 탈탄소화 동력을 회복한 상황이라고 전해짐.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대체안을 제시하며 자국 무역에 불리한 규제를 감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으나, 오는 가을 추가 회의를 거쳐 12월 최종 채택을 목표로 글로벌 단일 규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알려짐.

Production begins at eighth FPSO in Brazil's largest offshore field (Upstream) https://zrr.kr/kNiroH

브라질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bras가 산투스 분지 부지오스(Buzios) 유전에 투입된 FPSO P-79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한국의 한화오션과 이탈리아 Saipem이 공동 건조한 P-79는 하루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의 천연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이번 가동으로 브라질 최대 유전인 부지오스의 총 생산 능력은 약 133만 배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부지오스 유전은 총 12척의 FPSO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현재 P-80, P-82, P-83 등 후속 설비들이 건조 중이거나 입찰 단계에 있어 향후 브라질의 해상 에너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